

지역 소식통

정읍시, 친환경 학교급식 65억6400만원 지원

정읍시는 지역 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5억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99개교 1만947 여명의 학생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56억8,800만원(도비 13억 3,800만원, 시비 15억600만원, 교복 28억4,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6억원(도비 1억 9,200만원, 시비 2억1,600만원, 교복 1억9,200만원), 시 자체 예산 2억7,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작년 60%였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량을 80%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이달부터 500원 농어촌 통학택시 개시

고창군이 통학환경이 열악한 관내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일부터 통학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2km 이상이며,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시간이 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초·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기 중 통학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통학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택시요금 중 학생이 500원만 내면 그 외 요금을 군에서 보조해 준다.

이용요금이 버스요금과 같고 택시 운행시간도 등·하교 시간과 맞출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올해는 중·고등학교에서 100명의 이용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토를 마쳤다. /고창=김영식 기자

“불굴의 고창정신으로 이겨내”

“삶의 현장 목소리 적극 수렴”

고창군, 3.1운동 102주년 기념식...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등

고창군이 1일 오전 11시 동리국악당에서 '3.1운동 102주년 기념식-우리가 지킨 102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과 고창군의회 군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김만기 도의원, 보훈단체장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헌화, 독립선언문 낭독, 추념사,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비해 참석인원을 90명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념식 행사장 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입구에 발열체크, 소독 게이트가 설치됐고, 긴급 수송차량 등이 배치됐다.

앞서 고창군은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읍·면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했다.

'의향 고창이 높을고창으로 새로운



고창군이 1일 오전 11시 동리국악당에서 '3·1운동 10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100년을 시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등 문구가 쓰여진 가로기에는 일괄 정시에 선정 등 고창군 독립운동가 96명의 이름과 업적 등이 기록됐다.

또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민들은 나라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가

다 위대한 울려퍼 정신을 발휘해 왔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순간에도 주먹할 만한 빛나는 방역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불굴의 고창정신을 원동력으로 혼신을 다해 군민을 지켜내고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오늘부터 군민과의 공감 확산 대화 개최

권익현 부안군수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2021년 군민과의 공감 확산 대화를 3월 2일부터 개최한다.



권익현 군수

이번 공감 확산 대화는 2일 백산면·부안읍을 시작으로 3일 상서·하서면, 4일 동진·졸포면, 5일 주산·행안면, 8일 변산·위도면, 9일 진서면, 10일 계화·보안면 순으로 진행된다.

공감 확산 대화는 '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읍면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 군정비전 공유, 군민 공감 확산 대화 등 주민과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안군은 참석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이동식 방역게이트 설치, 출입명부 작성, 행사전후 행사장 소독 실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공감 확산 대화 이후에는 읍면별로 2개소씩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감 확산 대화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참여군정 실현의 좋은 사례"라며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지역발전의 모델을 가져오는 만큼 공감 확산 대화에서 제시된 내용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형문화재에 귀를 기울여 준 정읍시에 감사”

정읍시장,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유진섭 시장은 최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들로부터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농악 유지화·김중수, 판소리 김명신, 수군춤 신관철, 전통 술 담그기 송명섭, 약기장 서인석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정읍시청을 방문해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감사패를 직접 전달했다.

유진섭 시장은 농악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을 시의 자랑스러운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고 지역 내 무형문화재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전수교육관 건립을 구상하고 추진해왔다.

신관철 선생은 "정읍농악과 함께 개인 무형문화재까지 관심을 갖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준 정읍시에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어 기쁘다"고 감사패



정읍농악 유지화·김중수, 판소리 김명신, 수군춤 신관철, 전통 술 담그기 송명섭, 약기장 서인석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정읍시청을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달 취지를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는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 무형문화재 복합전수교

육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은 물론, 전시해설·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상설공연으로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으로 탄생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마무리

이남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아동학대 예방 위해 대응체계 강화"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은 최근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된 저출산·고령사회의 변화에 맞춰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를 통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생애맞춤형 인구정책으로의 개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이남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자'를 통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함과 아동학대 조사인력 확충, 아동학대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안건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상섭) 소관 이남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고, '정읍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됐다.

또한, 정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에 의한 살처분 처리비 등의 적액 국비지원 건의안'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보호지역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중단하고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조건부 살처분 정책을 추진할 것 등의 내용으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과·관·소장으로 부터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주요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피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심·의결한 주요 의안으로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호항 어

촌뉴딜 300사업(변경)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했다.

또한 차남준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강성모, 정만수, 김수영, 김영환 등 총 5명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감사위원을 선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Bokuk' (북극) featuring a polar bear in a snowy landscape. Text includes: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